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 요코하마 기반 스택폴딩 (비계) 서비스 제공업체 “Stack”에 투자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 V를 설립하여 일본 내 레버리지 바이아웃 집행

배포일: 2022년 8월 26일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이하 “오케스트라”)가 관리하는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 V, L.P. (이하 “OPE V”)는 일본 내 건설 업체에 비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Stack Co., Ltd.(이하 “Stack” 또는 “회사”)에 총 주식의 100% 규모의 투자를 실시하였습니다. OPE V는 Stack 경영진과의 협력을 통하여 칸토, 츄부, 홋카이도, 토호쿠, 호쿠리쿠 지역에서의 강력한 입지를 더욱 확대하고, 30년간의 업력을 통해 축적한 관계와 노하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Stack은 공사기간 중 비계의 대여, 설치 및 철거 등 비계 솔루션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tack의 서비스는 주거용 건물에서 상업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조물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주거용 주택과 아파트, 특히 이들의 개조 및 보수 수요에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의 선도자로서, 매년 2만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Stack은 최고의 품질을 위하여 동급 최상의 현장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고, 지역 여러 곳을 커버할 수 있는 우수한 사업 능력과 자원 동원력으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Stack은 비계 관련 수요를 위한 종합 솔루션 제공업체로서 임시 화장실 및 펜스와 같은 보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경영진과의 협력을 통하여 회사의 사업을 유기적 및 비유기적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고용 및 분석과 같은 기능의 강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추가인수합병 진행, 신규 고객 확보, 인력 강화, 비용 시너지 효과 증대 등 관련 분야 내에서 새로운 역량 개발에 힘을 예정입니다. 오케스트라는 회사의 성장을 위하여 새로운 관리 및 운영자원을 도입하여 수십년 간의 트랙레코드를 보유한 우수한 Stack 팀을 지원하여 회사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Stack의 CEO인 스키야마 타카시는 “Stack의 경영진은 오케스트라와의 협력을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특히 (일본 내) 유사한 비계 서비스 업체를 추가인수합병 하는 ‘롤업 (roll-up) 전략’의 실현을 위하여 오케스트라와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여러 업체들로 분열된 시장을 추가인수합병 등으로 통합하여 사업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갔으면 합니다.”고 하였습니다.

Kiraboshi Bank에서 인수금융을 조달하였습니다. 본 건의 재무 및 세무 자문사는 Yamada Partners, 경영컨설팅은 P&E Directions, 법률 자문사는 Tokyo International Law Office가 맡았습니다.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 개요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는 동북아시아에 기반을 둔 크로스보더 운용사로서, 중견·중소기업에 투자하여 '글로벌 챔피언'으로 성장시키는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입니다. 오케스트라는 투자대상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성장 관점에서 기업가치 창출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적용합니다. 또한 피투자기업의 경영진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회사의 유기적인 성장 및 지역 확장과 더불어 탁월한 리더십을 통해 사업을 제도화하고 국내외 추가인수합병을 추진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orchestraprivatteequity.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는 information@orchestraprivatteequity.com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Stack 개요

Stack은 웨지형 및 차세대 비계의 설치 및 제거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비계 솔루션 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회사는 고품질 서비스와 비계를 포함한 관련 니즈의 모든 측면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 간토, 주부, 홋카이도, 토호쿠 및 호쿠리쿠 지역 등에서 광범위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stack-ne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